

# 고려시기 제주지역 이해의 방향

박종기\*

- I. 머리말
- II. 지배의 측면에서 본 제주지역 연구
- III. 자율의 측면에서 본 제주지역의 특성
- IV.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의 가치
- V. 고려 후기 성주층의 위상 변화와 성격
- VI. 맺음말

## 국문초록

그동안 제주지역 연구의 주류적인 경향은 지배의 측면에서 고려 중기 이후 균현 개편을 통해 탐라국을 고려 영역으로 편제시키는 과정을 통해 제주지역의 변화와 특성을 고찰하는 작업이었다. 왕조정부가 지배의 거점으로 제주지역에 주목한 관점이다. 한편 자율의 측면에서 볼 때 제주지역은 고대 삼국 이래 고려 전기까지 탐라국으로 존재했다. 탐라국 지배세력인 성주층은 고려 균현체제에 편입된 이후 해체되지 않고 고려 후기까지 제주지역에서 지배세력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했다. 고려 전기에는 고려 중심의 천하질서에 번국(蕃國)으로 참여해 고려 조정에 조공(朝貢)과 사작(賜爵)을 통해 지위를 유지했다. 고려 후기에는 성주층은 원나라와 고려 조정의 제주 지배 의도와 방식을 꿰뚫고 두 나라에 대해 타협 또는 비타협의 태도를 취하는 등 고도의 정치력을 구사하면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했다. 이 연구는 자율의

\* 국민대학교 한국역사학과 명예교수(j9922@kookmin.ac.kr)

공간으로서 제주지역을 지배한 성주층의 존재에 대해 새롭게 주목했으며, 이는 향후 고려시기 제주지역 이해에 새로운 방법론이 될 것임을 강조했다.

주제어 : 성주 왕자 주기 기미주 팔관회 번국 여진 고조기 고득중

## I. 머리말

고려왕조는 지방 호족세력을 토대로 건국되었다. 때문에 고려왕조 건국에 협력한 지방세력과 그들의 근거지인 지방사회는 왕조 발전과정에서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제주(濟州)지역<sup>1)</sup> 역시 고려 지방사회의 일부라는 이해를 전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렇더라도 제주지역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어떤 측면에 주목해서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연구자에 따라 매우 다르리라 생각한다. 지방사회는 지배와 자율이라는 두 가지 속성이 교차하는 지역이다. 이 글은 지배와 자율의 두 측면에서 고려시기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지방세력의 입장에서 볼 때 지방사회는 각종 생산물과 재화를 생산하는 생산의 거점이자 고유의 전통과 문화를 유지, 발전시키려는 자율의 공간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지방사회를 다르게 인식했다. 즉, 군현제를 통해 통치명령을 전달하고 조세와 역역을 수취하여 중앙정부의 물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지배의 거점으로 인식했다. 이같이 지방사회는 자율의 공간이자 지배의 거점이라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모순된 개념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고려시기 중앙과 지방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일방적으로 지배하는 지배와 종속의 관계는 아니었다. 지방세력은

---

1) 『고려사』 지리지(권57 탐라현조)에 따르면, 오늘날의 제주는 고려시기에 탐라(耽羅)국·탐라·탐모라(耽牟羅)·탁라(毛羅)·제주 등 시기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호칭되었다. 이 글은 이러한 용어를 총칭하여 편의상 '제주지역'으로 호칭한다. 필요할 경우 해당 시기에 사용된 위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겠다.

중앙권력의 비리와 독주에 대한 비판과 견제를 통해 자율의 영역을 확대시키려 했고, 중앙정부는 지방세력의 독주와 민에 대한 수탈을 견제하면서 지배의 거점을 견고하게 유지하려 했다. 이같이 중앙과 지방 사이의 긴장과 조화, 견제와 균형이라는 지배와 자율의 운동법칙이 끊임 없이 교차하는 가운데 고려왕조는 대내외의 급격한 변동의 물결을 완화시키면서 왕조를 장기 지속시킬 수 있었다.<sup>2)</sup>

그동안 고려시기 제주지역 연구는 지배의 측면에서 중기 이후 중앙의 군현지배를 받으면서 지배의 거점 단위로 편제되어 가는 과정을 밝히는 작업이 주류적인 경향이었다. 즉, 탐라국에서 탐라군 탐라현 제주목 등으로 군현 명칭이 바뀌면서 제주지역이 고려 지방사회의 일부로 편제되는 과정을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했다. 『고려사』 등 참고할 만한 자료가 중앙정부의 시각 즉, 지배의 측면에서 작성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시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한편으로 제주지역은 자율의 측면에서 내륙지방(內地)과 바다로 격절(隔絶)된 지역적인 특성과 고대 삼국 이래 고려 전기까지 성주(星州)와 왕자(王子)(이하 성주층)로 상징되는 탐라국 체제를 이루어 내지(內地)의 지방사회와는 다른, 독자의 자율적인 공간을 구축하고 있었다. 군현지배 이후에도 성주층으로 상징되는 제주지역의 자율성은 고려 후기까지 여전히 유지되고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고려시기 제주지역의 이같은 자율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할 수 있다. 고려시기 제주지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배와 자율의 두 측면을 아우르는 균형된 시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지금까지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지배와 자율의 두 측면을 중심으로 고찰하되, 그동안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 않았던 성주층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전란과 내란 등으로 부침이 심했던 내지 지방세력인 호장층과 달리 성주층은 제주지역 지방세력으로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이 강했으며 내외부의 정세변동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위

2) 박종기,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17-28쪽; 「왕조의 장기지속성과 고려의 지방사회」,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 출판부, 2003, 101-111쪽

를 누렸다. 이 글은 이같은 성주층의 자율성과 지속성을 중심으로 제주 지역 지방사회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 II. 지배의 측면에서 본 제주지역 연구

고려 중앙정부가 제주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고찰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주 지방사회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이 지배의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방식이며, 고려시기 제주지역 연구의 주류적인 경향이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주지역은 중앙정부에 의해 도(島)라는 특수 행정단위로 편제되었는다는 연구<sup>3)</sup>는 이미 고려 초기부터 중앙정부가 제주지역을 지배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고려 중기 이후 군현지배를 받으면서 제주지역은 고려 영역으로 편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았다. 탁라(毛羅)에서 탐라군으로 명칭이 고쳐진 1105년(숙종 10)<sup>4)</sup> 혹은 현령관이 파견된 의종 때(1146~1170년)<sup>5)</sup>부터 각각 중앙정부의 직접 지배를 받아 고려의 영역으로 편제된 것으로 보았다.<sup>6)</sup> 의종 때 현령관이 파견 이후에도 제주지역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배는 점차 강화되어 갔다. 1216년

3)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37-58쪽 참고.

4) 고창석, 「탐라의 군현 설치에 대한 고찰」, 『제주대논문집』 14, 1982, 206-213쪽 참고. 고창석은 위의 논문에서 고창석은 위의 논문에서 숙종 10년 탐라군이 설치된 이후 다시 탐라현으로 강등되어 현령과 현위가 파견된 시점은 『탐라기년(耽羅紀年)』(의종 7년 11월조) 기록을 인용하면서(위 논문 213쪽 참고) 의종 7년(1053)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문제를 제기한 바 있으나 확정하지는 않았다. 매우 흥미있는 추론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기록은 후대에 작성된 것으로 그대로 믿기는 어려울 것이다.

5)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1996, 168-180쪽 참고

6) 노명호는 고려 중앙정부는 제주지역을 단계적으로 지배한 것으로 이해했다. 주기(朱記)를 요청하고 구당사가 파견된 현종 2년(1011)부터 탐라군으로 개편되는 숙종 10년(1105) 이전까지 제주지역은 기미주 단계, 숙종 10년 이후 현령관이 파견되는 의종 대는 내지화 내지 군현화 단계, 의종 대 이후는 내지 군현으로 전환되었다고 했다(「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2005, 187-207쪽).

(고종 3) 이전 어느 시점에 탐라현은 다시 탐라군으로 개편되었다. 제주(濟州)라는 명칭이 기록상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1229년(고종 17)이지만, 실제로 1223년(고종 10) 무렵에 제주로 개편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7)</sup> 탐라군 탐라현 제주로 군현을 개편한 배경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언급하기로 하겠다.

제주지역은 대몽항쟁기(1231~1258년)에 내지와 다르게 병란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때문에 무신정권은 1259년(고종 46) 몽골과의 강화(講和) 이후에도 몽골의 압력을 벗어나기 위해 여러 차례 제주지역으로 천도하려 했다. 무신정권의 권력자들은 제주지역이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해상의 요충지임을 인식하고 이곳을 거점으로 삼아 두 나라와 연합해 항몽전선을 구축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다.<sup>8)</sup> 삼별초가 이곳을 근거지로 몽골과 고려정부에 저항한 것도 제주지역의 지리적 이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273년(원종 14) 삼별초 군사를 진압한 원나라는 이곳에 탐라국 초토사(招討使)를 설치하고 다루가치를 파견해 제주지역을 원나라의 직할령으로 삼아 장차 남송과 일본 정벌을 위한 전초기지로 삼았다. 원나라는 이같이 제주지역을 고려 영토에서 분리시켜 지배하려 했다. 이후 원나라는 이곳에 탐라국 총관부(總管府·1275년 무렵), 탐라국 안무사(安撫司·1284년)를 설치했다. 1294년(충렬왕 20) 제주지역은 고려에 소속되어, 탐라 대신 제주(제주목)로 명칭이 고쳐졌다. 원나라는 다시 1301년(충렬왕 27) 탐라 군민만호부(軍民萬戶府)를 설치했는데, 이 명칭은 1356년(공민왕 5) 폐지될 때까지 유지되었다.<sup>9)</sup> 그런 가운데 1305년(충렬왕 31) 제주지역은 고려에 다시 소속되어 제주목이 되었다. 이같이 충렬왕 이후 공민왕 초기까지 제주목의 목관(牧官)과 만호부의 군관(軍官)의 2중체제는 제주지역 민에 대한 수탈을 강화

7) 김일우, 앞의 책, 2000, 224-226쪽.

8) 김일우, 앞의 책, 2000, 252-257쪽 참고.

9) 원나라는 초기에는 호남과 제주지역을 연결하는 수역(水驛)을 설치해 제주지역을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 내지 교역 거점지역으로 삼아 탐라를 통과하던 물자를 확보하려 했다고 한다(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 2017, 88-102쪽 참고).

한 결과가 되어 하층민 봉기의 원인이 되었다.<sup>10)</sup>

공민왕은 1356년(공민왕 5) 5월 반원개혁과 함께 제주지역에 도순문사 윤시우(尹時遇)를 파견해 기철 세력과 연결된 목호(牧胡) 세력을 조사하는 한편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마필(馬匹) 재원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려 했다. 이에 대해 목호(牧胡) 세력은 원나라와 연결해 제주지역을 다시 원나라로 예속시키려 했다.<sup>11)</sup> 이로써 제주지역에서 고려와 원나라 세력과의 충돌은 불가피했다. 1356년 10월 목호 가을적(加乙赤) 흘고탁(忽古托)이 반란을 일으켰다. 다시 1362년(공민왕 11) 8월 고독불화(古秃不花)와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등이 반란을 일으켰다. 원나라의 목호 세력은 이때 중앙에서 파견된 도순문사와 목사를 살해하는 반란을 일으켜 제주를 원나라에 예속시킬 것을 요청했다. 공민왕은 1366년(공민왕 15) 전라도 도순문사 김유(金庠)를 파견해 목호 세력을 토벌했으나 실패했다. 이듬해 임박(林樸)을 제주에 파견해 선무(宣撫)하기도 했다. 1369년(공민왕 18) 명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으면서, 공민왕은 1372년(공민왕 21) 3월 제주 말을 명나라에 진상하기로 결정하고 마필을 징발하려고 관리를 파견했다. 이해 4월 이에 반발해 목호 석가을비(石加乙碑)·초고도보개(肖古道甫介) 등이 명나라에 말을 보내는 것을 거부하고 제주에 온 관리들을 살해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1374년(공민왕 23) 7월 최영에게 명령하여 이해 11월 목호 세력을 정벌했다. 이후에도 목호 세력이 반란을 일으켰으며, 1387년(우왕 13)에야 목호 세력의 반란은 종식되었다.<sup>12)</sup> 지금까지 살폈듯이 고려시기 제주지역 연구의 주류적인 경향은 중앙정부가 군현제를 통해 제주지역을 지배의 거점 단위로 편제시켜 나가는 과정을 밝히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제주 지방사회의 변화와 변동을 고찰하는 방식이었다.

10) 원나라가 제주지역에 설치한 관부는 김일우의 연구를 참고해 정리했다(김일우, 앞의 책, 287-291쪽 및 322-340쪽 참고).

11) 이강한, 앞의 논문, 2017, 110-118쪽 참고

12) 목호 세력의 반란과 진압은 다음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했다.  
고창석,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4, 1985, 2-20쪽

### III. 자율의 측면에서 본 제주지역의 특성

군현의 거점 단위로 편제되기 시작한 숙종(1095~1105년 재위) 혹은 의종(1146~1170년 재위) 이전 제주지역 지방사회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지방사회를 주도한 세력의 실체 등 제주지역 지방사회의 자율적인 모습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이에 대한 고찰은 고려시기 제주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938년(태조 21) 12월 탐라국 태자 말로(末老)가 내조(來朝)하자, 고려는 그에게 성주와 왕자의 작위를 주었다,<sup>13)</sup> 성주 층으로 상징되는 제주지역 지방세력은 고려 조정으로부터 성주와 왕자의 작위를 세습 받았다. 995년(성종 14) 무산계(武散階) 제도가 시행된 이후 성주층은 고려 조정으로부터 무산계를 받았다. 1024년(현종 15) 탐라 추장 주물(周物)과 아들 고물(高沒)이 운휘대장군(雲麾大將軍·종3품)의 무산계를 받은 것이 첫 기록이다.<sup>14)</sup> 1053년(문종 7) 탐라국 왕자 수운나(殊雲那)가 배용교위(陪戎校尉)인 아들 고물(古物) 등을 고려 조정에 보내 우황(牛黃)·우각(牛角)·우피(牛皮)·나육(螺肉)·비자(榧子)·해조(海藻)·구갑(龜甲) 등의 물품을 바치자, 국왕은 왕자에게 무산계인 중호장군(中虎將軍·정4품上)과 함께 공복 의물(衣物) 및 약물을 주었다.<sup>15)</sup> 이같이 제주지역의 성주층은 고려조정에 내조해 방물(方物)을 바치고, 조정은 그들에게 물품을 하사하거나 관직(주로 무산계)을 주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이는 고려시기 일반적인 군현지배와는 다른 방식인데, 대체로 이러한 관례는 현령관이 파견되는 의종 때까지 지속되었다. 탐라의 성주와 왕자들이 받은 무산계는 운휘(雲麾)대장군(종3품)·중무(中武)장군(정4품上)

13) 『고려사』 권2 태조 21년, “冬十二月 耽羅國太子末老來朝 賜星主王子爵”

14) 『고려사』 권5 현종 15년 추7월, “壬子 以耽羅酋長周物子高沒 並爲雲麾大將軍上護軍”

15) 『고려사』 권7 문종 7년 2월, “耽羅國王子殊雲那 遣其子陪戎校尉古物等來 獻牛黃牛角牛皮螺肉榧子海藻龜甲等物 王授王子中虎將軍 賜公服銀帶采段藥物”

· 명위(明威)장군(종4품下) · 정원(定遠)장군(정5품上) · 유격(遊擊)장군(종5품下) 등 종5품下 이상의 관직이며, 성주와 왕자의 아들이나 동생에게는 배용교위(陪戎校尉)(종9품上) · 배용부위(陪戎副尉)(종9품下) 등 하급 관직이었다. 하급 관직을 받은 사람도 성주와 왕자로 승급하면 상급 관직을 받았다.<sup>16)</sup> 탐라의 성주 층에게 주어진 무산계는 1100년(숙종 5) 동서 여진의 추장에게도 주어졌다.<sup>17)</sup> 무산계는 군인 · 향리 · 공장(工匠) · 악인(樂人) 등 고려 영역내 주민은 물론 영역 밖의 탐라 왕족과 여진 추장에게도 주어진 사실<sup>18)</sup>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산계가 고려 영역 밖 주민을 포섭해 고려 독자의 천하질서를 수립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음을 알려준다.

성주층과 여진 추장은 무산계 외에도 다른 부분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받았다. 먼저 고려정부는 이들에게 군현의 주기(朱記)를 내려주었다. 주기는 군현 행정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발급하는데 필요한 일종의 관인(官印)이자 군현의 존재를 상징하는 물품이다. 여진 추장들에게 내려준 주기의 예를 살펴보자. 1073년(문종 27) 6월 여진의 여러 번(諸蕃)에서 끊임없이 고려에 귀순하는데, 담당 관리들이 이들의 귀순을 막지 않고 군현의 명칭(州號)을 정하고 주기를 주도록 하자는 동북병마사의 보고를 국왕이 승인했다.<sup>19)</sup> 같은 해 9월 동여진의 대란(大蘭) 등 11개 촌락이 고려에 귀부하자, 그들의 거주지를 주(州)로 만들고 주기를 내려주고 귀순주(歸順州)로 편입시켰다.<sup>20)</sup> 이렇게 편성된 군현을 기미주(羈

16)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1996, 176-177쪽 참고

제주지역 성주층이 내조하여 무산계를 받은 사실은 다음의 김창현과 진영일의 연구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김창현,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322-325쪽, 334-335쪽

진영일,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서, 2008, 172-174쪽

17) 『고려사』 권11 숙종 5년, “二月 乙巳 御神鳳樓 赦二罪以下 加名山大川神號 兩京文武百官爵一級 (中略) 東西蕃長 加武散階”

18) 旗田巍, 「高麗의 武散階」, 『朝鮮學報』 21 · 22, 1961(『조선중세사회의 연구』, 법정대학출판국, 1972, 재수록)

19) 『고려사』 권9 문종 27년 6월, “戊寅 東北面兵馬使奏 (中略) 今諸蕃 絡繹歸順 不可遮設關防 宜令有司 奏定州號 且賜朱記 從之”



糜州)라 부르기도 한다. 고려에 내투한 여진족 거주지를 군현으로 편제시켜 기미주로 삼은 것은 이들의 거주지가 고려 중심의 천하질서에 포섭되어 고려의 울타리 즉, 고려의 번병(藩屏)이자 번방(蕃邦)이 된 것을 의미한다. 고려는 이같이 스스로 천하의 중심으로 자처하고 여진 추장들에게 무산계와 주기를 주고 고려의 군현(기미주)으로 편입시킴으로서, 여진 추장은 고려의 통치와 교화를 받는 ‘화내번인(化內蕃人)’ 즉, ‘화내인(化內人)’이 되었다.<sup>21)</sup>

이같은 사례는 제주지역에도 나타난다. 1011년(현종 2) 탐라는 (고려 내지의) 주(州)와 군(郡)과 같이 주기(朱記)를 요청하자 중앙정부가 이를 허락했다.<sup>22)</sup> 여진에게 주기를 내린 문종 때보다 훨씬 이른 시기 제주지역에도 주기가 내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는 중앙정부의 제주지역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되었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탐라지역이 고려 내지의 일반 군현과 같은 대우를 받기 위해 주기를 요청했다고 해석하거나,<sup>23)</sup> 혹은 탐라가 고려의 내정간섭을 수용하겠다는 의사 표시이며, 탐라에 대한 고려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했다.<sup>24)</sup> 한편으로 주기를 받은 것은 제주지역이 내지의 군현과 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거나 군현 형태의 지방 행정단위로 편제되기 위해서라고 했다.<sup>25)</sup> 이는 주기를 내리는 행위가 제주지역을 지배의 거점으로 장악해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탐라가 스스로 주기를 요청한 것은 중앙정부의 예속을 원하기보다는, 탐라 지배층이 제주지역에서 자신들의 권위를 신장하여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의지를 표현하려

20) 『고려사』 권9 문종 27년, “九月 甲辰 翰林院奏 東女真大蘭等十一村內附者 請爲濱利福豆舒濕閩戴敬宛十一州 各賜朱記 仍隸歸順州 從之”

21) 박종기, 「고려 전기 주민구성과 국가체제-來投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논총』23, 2009, 120-127쪽 참고

22) 『고려사』 권4 현종 2년 9월, “乙酉 耽羅乞依州郡例 賜朱記 許之”

23) 고창석, 앞의 논문, 1982, 212쪽 참고

김보광, 「고려 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변경과 경계의 동아시아사』, 혜안, 2018, 117쪽

24) 김창현, 앞의 논문, 1998, 314-315쪽 참고

25) 김일우, 앞의 책, 2000, 49-54쪽

는 목적에서 주기를 요청했다고 보는 것이 순리적이다. 주기를 갖는 것은 제주지역의 입장을 고려 조정에 직접 전달할 통로와 함께 문서 행정상의 위치와 자격을 부여받은 행위로서, 제주지역 지방세력의 통치권과 관련되는 의미를 갖는다는 해석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sup>26)</sup> 즉, 제주지역 지방세력이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주기를 스스로 요청한 행위로 해석했다.

주기와 함께 제주지역에 구당사(句當使)가 파견된 것도 현종 무렵이다. 최초의 구당사는 995년(성종 14) 압록강 지역에 처음 설치되었는데, 구당사 파견을 이 무렵 제주지역이 주기를 요청한 사실과 연결시켜 해석한 연구가 있다. 주기 요청을 계기로 제주지역에 설치된 구당사는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는 연락기관의 성격을 가지면서, 송나라와 일본 등과 교류 하는 제주지역의 동향을 감시하는 기능을 가졌다고 했다.<sup>27)</sup> 다른 연구에서도 구당사는 고려 군현으로 편입되기 이전인 현종 때 설치되어 제주지역의 동향과 함께 고려와 제주지역 사이의 현안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기능과 역할을 수행했다고 한다.<sup>28)</sup> 구체적으로 1090년(선종 7) 탐라 구당사는 성주의 죽음을 알리고, 그에 따른 부의(賻儀) 지출 및 동생의 성주직 세습의 승인을 상급 기관인 예빈성에 보고했다. 예빈성은 이를 왕에게 보고해 허락을 받은 사실<sup>29)</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이 탐라국 단계의 제주지역은 무산계와 주기를 받거나 구당사가 파견되는 등 기미주 단계에서 고려 중심의 천하질서에 편입되었지만, 아직 군현지배를 받아 중앙정부에 직접 장악된 단계는 아니었다.<sup>30)</sup>

26) 노명호, 앞의 논문, 2005, 181-191쪽 참고

27) 김일우, 앞의 책, 2000, 56쪽 및 220-223쪽 참고

28) 노명호는 중앙정부에 주기(朱記)를 요청하고 이곳에 구당사가 파견된 현종 2년(1011)부터 탐라군으로 개편되는 숙종 10년(1105) 이전까지의 제주지역은 기미주의 위치에 있었다고 했다(앞의 논문, 2005, 190-191쪽 참고).

29) 『고려사』 권10 선종 7년 정월, “己丑 禮賓省據毛羅勾當使申狀奏 星主游擊將軍加良仍死 母弟陪戎副尉高福令繼之 賙賻之物 宜準舊例支送 制可”

30) 구당사에 대해 다른 견해도 있다. 김보광은 구당사는 탐라국이 소멸되거나 그 이후인 1077-1079년 사이에 제주지역에 임명되었다고 했다(김보광, 앞의 논문,

비록 고려 중심의 천하질서에 편입되었지만 당시 성주층은 제주지역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지녔다. 그를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팔관회 참석이다. 팔관회는 성종 때 일시 정지되는 것을 제외하고 태조 이후부터 고려왕조 내내 시행되었다. 탐라국이 처음 고려에 공물을 바친 925년(태조 8) 혹은 탐라국 태자가 고려에 조회한 938년(태조 21) 이후 탐라국도 매년 팔관회에 참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탐라국이 팔관회에 참석한 첫 기록은 1034년(정종즉위)이다. 이해 중앙의 왕족 재상을 비롯한 문무백관과 양경(兩京)·양계(兩界)·4도호부와 8목 등 상급 단위의 지방관이 팔관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제주지역은 위의 참석자와 구분되어 ‘탐라국’으로서 송나라 상인 동서여진(東西蕃)과 동열(同列)로 팔관회에 참석했다.<sup>31)</sup> 즉, 제주지역을 고려 영역 밖의 나라(탐라국)로 인식했다. 또한 탐라국과 함께 참석한 동서여진을 동서번(東西蕃)이라 했다. ‘번(蕃)’은 천자의 번병(藩屏)이라는 뜻이며, 천자국 중국(上國)이 이역(異域) 봉신(封臣) 제후(諸侯)와 정치외교적인 관계를 맺는 용어이다. 이에 따라 조공과 사작(賜爵)을 매개로 상국(上國)과 번(蕃)은 천자와 제후의 관계가 형성된다.<sup>32)</sup> 탐라국 역시 동서여진과 같이 고려의 ‘번’으로 인식되었다. 따라서 고려와 여진·탐라와의 관계는 상국(上國)과 번국(蕃國)의 종번(宗藩)의식에 바탕을 둔 천자와 제후 관계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국왕에게 표문을 바친 고려의 상급 지방관인 경·목·도호부와 다르게, 동서여진과 탐라국은 국왕에게 각각 토산물인 방물(方物)을 바친 사실도 그런 사실을 뒷받침한다. 이같이 군현지배가 실현되기 이전 제주지역(탐라국)은 고려의 번방(蕃邦) 즉, 제후국의 일원으로 인식되었다.<sup>33)</sup>

2018, 123-124쪽 및 131-132쪽 참고.

31) 『고려사』 권69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靖宗 卽位年) 十一月 設八關會 御神鳳樓 賜百官酺 翌日 大會 又賜酺 觀樂 東西二京 東北兩路兵馬使 四都護 八牧 各上表陳賀 宋商客東西蕃耽羅國 亦獻方物 賜坐觀樂 後以爲常”

32) 추명엽, 「고려 전기 ‘번’ 인식과 ‘동·서번’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002, 16-19쪽 참고

33) 진영일은 고려 건국 후 현령관이 파견되는 의종대 이전까지의 탐라국의 위상은 제후국으로 파악했다(앞의 논문, 1996, 173-180쪽 참고).

시기는 밝혀져 있지 않으나 또 다른 기록에는, 탐라인은 동서의 여진인[東西蕃子]이 팔관회에 참석해 대관전(大觀殿)에서 국왕에게 방물을 바친 절차와 의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sup>34)</sup> 이 기록에 나오는 대관전은 1138년(인종 16)에 명칭이 고쳐진 사실에 주목해 탐라국(탐라인)은 인종 때까지 팔관회 의식에 참여했다고 한다.<sup>35)</sup> 한편 1153년(의종 7) 11월 경자(庚子·15일)에 탐라현의 도상(徒上) 인용부위(仁勇副尉) 중연(中連)과 진직(珍直) 등 12명이 와서 방물을 바쳤다는 기록<sup>36)</sup>이 있다. 방문한 11월 15일은 팔관회 둘째날인 대회(大會)일이다. 이날은 관례에 따라 송나라 상인 여진인 탐라인이 방물을 바치는 날이다. 따라서 탐라현 중연(中連)과 진직(珍直) 등은 팔관회 참석을 위해 고려를 방문해서 방물을 바쳤으며, 이는 의종 때에도 제주지역이 팔관회에 참석한 또 하나의 사례로 추가할 수 있다.

고려 중심의 천하질서에 편입된 동서번의 여진 지역은 1115년(예종 10) 금나라가 건국되면서 금나라에 편입되어 고려의 영역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반면에 고려의 번(蕃)이었던 제주지역[탐라국]은 의종 재위기간(1146-1170년)인 12세기 중반 고려의 군현[탐라현]으로 편입되면서, 동서번의 여진 지역과는 다른 길을 걸었다. 나아가 탐라현은 13세기 전반 다시 제주로 군현 명칭이 고쳐졌다. 제주지역이 이같이 탐라현·제주

34) 『고려사』 권69 禮11 嘉禮雜儀 仲冬八關會儀, “大會日坐殿 王初御宣仁殿 承制以下 近侍官及後殿官 起居訖 出御大觀殿 (中略) 閣門引宋綱首等 就閣辭位 立定 閣門奏聞辭云 大宋都綱某等 祇候朝賀訖 引就拜位 跪進物狀 閣門接上 俛伏興 舍人喝 再拜 行頭奏聖躬萬福 奏山呼再拜 行頭進步 退復位 奏山呼再拜 次傳宣 賜坐看樂 兼賜所司酒食訖 奏山呼再拜 卷班西出 就幕次 次引東西蕃子 次引耽羅人 朝賀及傳宣禮 並與宋綱首同 次引四方貢物 與諸蕃貢物”

참고로 다음 기록 즉, ‘辛未 設八關會 幸法王寺 宋商耽羅東北蕃酋長等來 獻土物(『고려사』 권11 숙종 5년 11월조)에서, 송상과 동서번의 추장 등과 함께 토산물을 바친 ‘탐라’는 실제로 ‘탐라 추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의 기록(대관전 팔관회)에서 방물을 바친 탐라인 역시 탐라 추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5) 김창현, 앞의 논문, 1998, 321-322쪽 참고

36) 『고려사』 권18 의종 7년 11월, “庚子 耽羅縣徒上仁勇 副尉中連·珍直等十二人來 獻方物”

등의 명칭으로 고려 군현체제에 편입되어 고려 영토로 편입된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일까? 이에 대해 고찰하기로 하겠다. 1115년 금나라 건국, 1125년 거란의 멸망 등 국제정세의 급변은 고려에 커다란 위협이 되었다. 특히 신흥국 금나라는 거란으로부터 회복한 압록강 이동의 고려 영토인 보주 영유권을 둘러싸고 고려를 압박했다. 고려는 1126년 금나라와 형제맹약을 맺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12세기 전반 국제정세의 변동에 따른 위기의식이 송나라와 일본과 교류가 잦았던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 제주지역을 군현으로 편입해 직접 지배한 배경이 되었다. 거슬러 올라가 12세기 초 1105년(숙종 10) 탐라국이 탐라군으로 개편된 사실도 여진족의 강성과 1차 여진 정벌이라는 국내외 정세 변동과 관련이 있었다. 1223년(고종 10) 무렵 탐라현이 제주로 명칭이 변동되어 군현의 위상이 높아졌다. 1206년(희종 2) 몽골의 건국, 1216년(고종 3) 몽골군에 쫓긴 거란족의 고려 침입, 1219년 몽골과의 형제맹약과 고려에 대한 과도한 공물요구 등 국제정세 변동과 위기의식이 고조되면서 당시 제주지역 군현 개편의 배경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금나라의 건국으로 동서번의 여진 지역을 상실한 12세기 전반의 역사적 경험과 13세기 전반 몽골의 등장과 고려에 대한 압박이 제주지역에 대한 군현 지배를 강화하여 고려 영토로 편입되는 배경이 되었다. 제주지역에 대한 군현 지배의 또 다른 의의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고려의 번방(蕃邦)으로 제후국의 위상을 지녔던 탐라국은 이후 탐라군 탐라현 제주목 등으로 군현명칭이 개정되면서 고려의 군현질서로 편제되어 갔지만, 탐라국을 상징하는 성주층은 고려 후기까지 존속하고 그 직위는 세습되었다. 따라서 지방사회로서 제주지역이 지닌 자율적인 측면(자율성)은 쉽게 해소되거나 소멸되지 않았다. 고려시기 제주지역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속적인 모습(지속성)에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 IV.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의 가치

고려 후기 제주지역 지방세력의 동향과 변화 과정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자료는 정이오(鄭以僞, 1347-1434년)가 쓴 「성주고씨가전(星主高氏家傳)」(이하 「가전」)<sup>37)</sup>이다. 그는 공민왕 때 과거 급제 후 우왕 때 관로(官路)에 올라 조선 초 『태조실록』 편찬에 참여한 문인인데, 제주 성주(星主) 후예 고득중(高得宗, 1388~1452년)의 부탁으로 「가전」을 작성했다.

「가전」에서 작성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구절은, ‘금사온서령 득중(今司醞署令得宗)’, ‘금상갑오(今上甲午·1414·태종 14)’, ‘무술(戊戌·1418·태종 18) 추7월 봉사귀고향(奉使歸故鄉)’ 등이다. 고득중이 사온서령에 재직한 사실은 태종 18년 6월 기록<sup>38)</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정이오가 「가전」 작성 당시를 ‘금상 즉, 태종 때라고 했다. 고득중이 고향 제주로 내려간 시점도 태종 때(18년 7월)라 했다. 참고로 1418년(태종 18) 8월 태종이 퇴위하고 세종이 즉위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가전」은 늦어도 태종이 퇴위하기 직전인 1418년 7월 무렵에 작성되었다.

「가전」에 따르면, 제주 출신으로 처음으로 중앙정계에서 크게 활약한 고유(高維)·고조기(高兆基) 부자를 의종 대 이후 고씨 출신 성주층 계보의 첫머리에 두었다. 고유-고조기 이후 고정익(高挺益)-고적(高適)-고인탄(高仁坦)-고석(高碩)-고순량(高順良)-고순원(高順元)-고신걸(高臣傑)-고봉례(高鳳禮)-고득중(高得宗)까지의 성주층 계보가 「가전」에 기록되어 있다. 1281년(충렬왕 7) 일본 정벌과 1294년(충렬 20) 탐라를 고려에 귀속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고인탄(高仁坦)<sup>39)</sup>을 「가전」에서 고유(高維)의 5세손이라 했는데, 이는 고유와 고조기를 중심으로 「가전」이 작성된 또 다른 증거가 된다.

37) 『동문선(東文選)』 권101

38) 『태종실록』 권36 태종18년 6월 태종 18년 6월 乙巳[26일]조 참고

39) 「가전」의 고인탄(高仁坦)을 『고려사』에는 고인단(高仁坦), 『탐라지』는 고인조(高仁朝)으로 각각 표기했다. 모두 동일 인물이다.

그러나 「가전」 기록은 자료로서의 한계 또한 없지 않다. 고조기는 부친 고유와 함께 중앙정계에서 활약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감했다. 『고려사』 고조기 열전(권98)에서 고조기는 ‘탐라인’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이며, 성주였다는 사실은 『고려사』 등에서 확인할 수 없다. 1362년(공민왕 11) 탐라 목호(牧胡) 고독불화(古禿不花)와 석질리필사(石迭里必思) 등과 반란을 일으킨 탐라 성주 고복수(高福壽)<sup>40)</sup>와 1375년(우왕 1) 제주인 차현유(車玄有)의 반란을 진압한 성주 고실개(高實開)<sup>41)</sup>도 「가전」의 성주 계보에서 탈락되어 있다. 또한 의종 대 이전 고려 전기에 내조한 제주 지역 성주 왕자층의 명단<sup>42)</sup>도 「가전」의 성주층 계보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반면에 「가전」에는 성주들이 원나라와 고려에 공을 세운 사실이 특별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 고적은 1273년 삼별초 진압 후 제주 유총관(留摠管)에 임명되어 제주민을 안무했다. 그가 1278년(충렬왕 4) 원나라에 조회해 황제로부터 금패를 받은 이후 집안이 번성하게 되었다고 한다.<sup>43)</sup> 아들 고인탄은 1281년(충렬왕 7) 2차 일본 원정 때 제주 지역에서 100척의 선박을 건조하는데 공을 세웠다. 1284년(충렬왕 10) 황제로부터 금패와 함께 무산계 명위장군을 받고 군민안무사에 임명되었다. 1292년(충렬왕 18) 탐라지휘사에 임명되었다. 그는 1294년(충렬왕

40)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8월, “耽羅牧胡古禿不花石迭里必思等 以星主高福壽叛”

41) 『고려사』 권133 우왕1년 11, “濟州人車玄有等焚官廨 殺安撫使林完 牧使朴允清 馬畜使金桂生等以叛 州人文臣輔 星主高實開 鎮撫林彥 千戶高德羽等 起兵盡誅” 그러나 「가전」에서는 차현유 반란을 진압한 성주를 고신걸(高臣傑)이라 했다(明年乙卯(\*1375/우왕 1) 車玄有內成輩 構逆煽亂 殺本國萬戶 臣傑乃與王子文忠傑 議 請於國討平之 車玄有之黨 知之 三日圍高文二家 盡殺六畜 高文二人 僅以身免 仗國之靈 克正其罪). 따라서 『고려사』의 고실개(高實開)는 「가전」의 고신걸과 같은 인물로 추정된다. 이같이 두 기록 사이의 상이성은 「가전」 기록이 부실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예가 된다.

42) 『고려사』 등의 기록에 근거해 고려 전기 성주 왕자층의 명단은 김창현의 연구에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다(김창현, 앞의 논문, 1988, 322-325쪽 <표 1> 자료참고).

43) 「가전」, “比及至元八年[1271년] 辛未夏 神義軍三別抄 叛入耽羅 二十年[至元10년]癸酉[1273년]夏四月 國家濟師 討之盡殲 以高適爲留摠管 特令安集餘民 戊寅[1278년]夏 赴朝 親授金牌 甲申[1284년] 改摠管府 爲軍民安撫使事 繼世遂顯焉”

20) 제주를 고려에 귀속하는데도 공을 세웠다.<sup>44)</sup> 고석은 서(海)도 부천호(副千戶)에 임명되었다. 같은 직책에 임명된 아들 고신걸은 1374년(공민왕 23)과 1375년(우왕 1) 제주지역 반란을 진압하는데 참여해 공을 세웠다. 1377년(우왕 3) 왜선 6백 척이 제주를 침입했을 때 물리치는 공을 세웠다.<sup>45)</sup> 「가전」에서 이러한 사실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조선 태종 때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고득중이 관직활동을 하면서 고려 후기 이후 성주층이 고려와 원에 공로를 세운 사실을 강조하고자 한다. 즉, 제주지역을 조선왕조 군현의 일부로 편입해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려는데 「가전」 작성의 목적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 때문에 그동안 연구자들이 「가전」 자료에 크게 주목하지 않은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가전」이 지니는 자료 가치 또한 없지 않다. 이원진(李元鎭, 1594-1665년)이 편찬한 『탐라지(耽羅志)』(1653년) 「인물」조에도 「가전」의 내용이 인용되고 있어,<sup>46)</sup> 조선 중기에도 「가전」이 제주지역에 널리 알려져 이용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전」의 가치는 『고려사』에 기록되지 않은 삼별초 항쟁 이후 원 간섭기 이후 성주층의 활동이 자세하게 정리되어 있어, 고려 후기 제주지역 지방세력의 동향과 변화과정을

44) 「가전」, “五世孫仁坦 襲爵 至元辛巳[1281년] 元朝欲征日本 勅前朝 備戰艦九百艘 軍資器仗一切庫辦 故令下耽羅 使造一百艘 儲待應副 亦無有闕其計 皆自仁坦出也 至元二十一年[1284년] 又受宣命金牌 明威將軍安撫司使 二十九年[1292년] 以征東行中書省 符付充耽羅副軍使 至是 乃與副使文昌祐 同知金瑄 定議 奏達元朝 還屬本國”

45) 「가전」, “仁坦之子高碩者 爲西道副千戶 後碩之冢子順良 傳襲星主 弟順元繼之子戶曹典書高臣傑 洪武己酉[1369년] 爲西海道副千戶 越七年[1374년] 玄陵興師 討哈赤 後仍以臣傑 爲副千戶 明年乙卯[1375년] 車玄有, 內成輩 構逆煽亂 殺本國萬戶 臣傑乃與王子文忠傑議 請於國討平之 車玄有之黨 知之 三日圍高文二家 盡殺六畜 高文二人 僅以身免 仗國之靈 克正其罪 丙辰丁巳[1377년] 倭船六百許艘 周迴而入 臣傑中箭 盡心禦之 受職賞 甲子[1384년] 加星主 仍賜紅鞵紫袍寶蓋及弓矢表裏宣醢”

46) 『탐라지』 「인물」조에는 신라 고후(高厚) 고청(高淸), 고려 고유(高維) 고조기(高兆基) 고적(高適), 본조(本朝·조선) 고득중(高得宗)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특히 고득중에 관한 사실을 기록하면서 「鄭以吾撰 星主高氏家傳」을 직접 인용하고 있다.



살필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 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V. 고려 후기 성주층의 위상 변화와 성격

제주지역 지방세력은 내지와 다르게 고려 후기에도 해체되지 않고 존속된 사실을 「가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제주지역 지방세력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예가 된다. 실제로 내지의 지방사회는 무신정권기의 농민봉기, 몽골의 침략과 항쟁, 원 간섭기 권세가의 토지 탈점과 과중한 공물과 역역 수탈로 크게 동요되었으며, 거의 해체된 상태와 다름이 없었다. 그런 가운데 탈점과 수탈에 견디지 못한 주민들은 물론 지방 행정의 일선에서 조세와 공물 징수를 담당한 지방세력(향리)까지도 이탈했다. 1296년(충렬왕 22) 당시 군현과 향·소·부곡의 향리가 1호도 없는 곳이 많았다고 한다. 심지어 향리들은 권세가의 힘을 빌려 고된 향리역을 피하려 다른 곳으로 유망했다.<sup>47)</sup> 그러나 「가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고려 후기 제주지역 지방세력인 성주층은 내지와 다르게 안정된 지위를 유지했다. 이렇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 농민봉기와 대몽항쟁의 와중에서 지방세력이 거의 해체된 내지와는 다르게 제주지역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았다. 삼별초 세력이 제주지역에서 최후의 항쟁을 벌인 1271-1273년의 2년 간을 제외하고 제주지역은 외침을 받지 않았다. 물론 수탈에 저항한 하층민과 목호(牧胡)의 봉기는 있었지만, 제주 지방세력인 성주층을 크게 동요시킬 정도는 아니었다. 원나라의 제주지역 지배방식도 원 간섭기 이후 성주층의 위상과 지위가 크게 변하지 않은 또 다른 원인이었다. 원나라는 제주지역을 직할지로 삼기 이전부터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에 주목했으며, 현지의 지배세력인 성주층을 이용해 제주지역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현실화 하려 했다. 이는 성주층이 고려 전기 이래 지배세력의 지위를 유지한 중요한 원인이 되

47) 『고려사』 권84 형법1 職制조 충렬왕 22년 5월, “諸州縣及鄉所部曲人吏 無一戶者多矣 外吏依勢避役者 悉令歸鄉”

었다.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몽골은 1259년 고려와 강화 이후 남송과 일본 정벌을 다음의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두 나라 정벌을 위해 전략의 요충지로 탐라에 주목했다. 1266년(원종 7) 11월 고려 사신을 통해 탐라 성주가 몽골 조정에 조회했는데, 이는 몽골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1268년(원종 9) 10월 몽골은 고려에 사신을 파견해 1만 명의 군사 징발과 1천 척의 전함을 건조하게 했다. 또한 탐라도 1백 척의 전함을 건조하게 하는 한편으로, 남송과 일본을 정벌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탐라와 흑산도를 방문해 해로(海路)를 조사하게 했다. 이듬해 7월에도 탐라 등지의 해로를 시찰하게 했다. 몽골의 쿠빌라이는 이같이 남송과 일본을 연결하는 요충지라는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 나라 정벌의 전초기지로서 탐라에 주목했다.<sup>48)</sup> 1271년(원종 12) 5월 삼별초 군대가 제주지역을 점거하자, 1273년 4월 몽골과 고려 연합군은 삼별초 군사를 진압하고 이해 6월 이곳에 탐라 초토사(招討使)를 설치해 제주지역을 직접 지배했다. 몽골은 제주지역이 말 생산의 최적지임을 인식하고 1276년(충렬왕 2) 160필의 말을 방목하기 시작했다. 이듬해 동서 아막(阿幕)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말을 기르기 시작했다. 또한 다루가치를 파견하고 총관부 안무사 만호부 등의 지배기구를 차례로 설치하고 제주지역을 직접 지배하려 했다. 1294년 고려의 요청으로 제주지역을 고려에 돌려주었으나 고려를 통해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말을 몽골에 바치게 했다. 이같이 몽골은 제주지역 지방세력인 성주층을 해체하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의 협조를 얻어 제주지역을 지배하려 했다.

고려왕조 역시 후기에는 원나라와 같은 지배방식을 활용해, 성주층의 세습을 허락하고 그들의 협조를 얻어 제주지역을 지배하려 했다. 이는 의종 때 현령관 파견과 같이 지방관을 통해 제주지역을 직접 지배하는 방식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1292년(충렬왕 18) 탐라 지휘사(指揮使)에 임명된 고인단은 부사 문창우(文昌祐)와 동지(同知)인 김선(金瑄)과 계책을 정하고, 원나라에 아뢰어 제주지역을 돌려받게 했다. 충렬왕은 그의

48) 고창석, 「려·원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대논문집』17, 1984, 372-379쪽 참고.

충성을 가상하게 여겨 역어낭장(譯語郎階將)인 정공(鄭恭)과 임양필(任良弼)을 시켜서 왕명으로 개경에 불러들여 성주 고인단에게 무산계 운휘상장군(雲麾上(大)將軍·종3품)을 내리고 붉은 가죽띠와 자주빛 옷과 보개(寶蓋) 등의 물품을 내렸다. 충렬왕은 신라시대 이후 지금까지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지극한 정성이 가상하다면서 성주직의 세습을 허락했다.<sup>49)</sup> 세습을 허락한 것은 고려정부가 성주층을 통해 제주지역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며, 원나라의 제주 지배방식과 다르지 않았다. 성주층의 협조를 통해 제주지역을 통치하려 한 두 나라의 지배 방식으로 인해 성주층은 유지될 수 있었다.

다음의 기록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성주와 왕자들은 제주지역에 일어난 반란에 대해 때로는 고려나 원의 지배에 순종하거나 때로는 반역에 가담하기도 했다. 고려 조정은 안무사·선무사·지휘사·방어사·부사·목사 등을 파견했고, 원나라는 초토사·다루가치·정치사·단사관·만호 등을 파견해 (성주층을) 달래고 위무했다. 성주층에게 관직을 주고 관아를 설치해 관할지역을 나누어 다스리게 하여 풍속을 유지하게 했다. 이로 인해 이들은 (고려나 원나라에 대해) 방물을 바치는 등 정성이 한결 같았다고 한다.<sup>50)</sup> 원간섭기 이후 두 나라는 제주지역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안무사 초토사 만호 등의 사신을 파견하는 한편으로 성주층에게 관직을 주고 관청을 설치해 자율적인 통치를 허락함으로써 제주지역을 안정시킬 수 있었다.

고려의 번방(蕃邦) 즉, 제후국으로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지닌 고려 전기의 성주층은 고려 후기에도 쉽게 해체되지 않았다. 실제로 삼별초 항쟁이 진압된 이후 제주지역은 원나라의 직할지가 되어 내지보다 더

49) 「가전」, “(至元 二十九年) 至是 乃與副使文昌祐 同知金瑄 定議 奏達元朝 還屬本國 忠烈王嘉其忠誠 特使譯語郎階將鄭恭任良弼宣召 爲星主雲麾上將軍 賜紅鞞紫衣寶蓋 賚予不貲 紅鞞寶蓋之賜 自新羅權輿焉 忠烈若曰 自羅代直至于今 徇國赤誠 爲可惜也 星主之職 永世毋墜”

50) 『탐라지』 건치연혁조, “星主王子之號 自新羅始封 世世襲爵 至高麗時 沿革相仍 亂亡相繼 人心乖隔 乍順乍逆 國家 時遣安撫使宣撫使巡問使督軍使防禦使副使牧使 元亦 遣招討使達魯花赤整治事斷事官萬戶 以招撫 使星主王子 各立官衙門 分治所管 維持風俗 貢獻方物 一出於誠”

강하게 원나라의 압박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주층은 원나라에 크게 저항하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성주층은 고려 정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태도를 취했다. 성주층의 태도는 지금까지 설명했듯이 원과 고려정부가 제주지역을 지배하기 위해 성주층에게 자율적인 통치를 허락한데서 비롯되었다. 이는 고려 후기 성주층이 내지의 호장층과는 다른 특성이며, 고려전기 성주층이 누렸던 제후국으로서의 독자성 자율성과는 다른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고려 후기 성주층이 누렸던 것은 원과 고려정부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누렸던 제한적인 성격의 독자성과 자율성이었다. 고려 전기와 후기 성주층이 누렸던 독자성과 자율성은 각기 다른 의미를 지녔지만, 독자성과 자율성 자체는 고려 시기 제주지역의 지방사회와 지방세력의 존재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런 한편으로 성주층은 고려 후기 이후 점차 내지의 지방세력인 호장층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어 갔다. 1294년(충렬왕 20) 원으로부터 제주지역의 고려 귀속에 성주층이 크게 공을 세웠다. 충렬왕은 이해 탐라 왕자 문창유(文昌裕)와 성주 고인단(高仁旦)에게 붉은 가죽띠[紅鞵]·아홀(牙笏)·모자[帽]·양산[蓋]·신발[靴] 등을 하사했다.<sup>51)</sup> 충렬왕이 고인단에게 하사한 붉은 가죽띠[紅鞵]·아홀(牙笏)·모자[帽]·양산[蓋]·신발[靴] 등은 전통적으로 호장과 부호장층이 착용하는 복식이다. 이는 제주가 고려에 귀속되면서 성주층이 내륙의 호장층과 동일한 지위로 바뀌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1300년(충렬왕 26) 제주지역에 14개 현촌(縣村)이 설치되었고, 각 현촌은 대촌(大村·호장 3인과 城上 1인)·중촌(中村·호장 3인)·소촌(小村·호장 1인)에 호장층을 두었다는 기록<sup>52)</sup>이

51) 『고려사』 권31 충렬왕 20년, “十一月 庚戌 賜耽羅王子文昌裕 星主 高仁旦 紅鞵 牙笏 蓋靴 各一事 耽羅今歸于我 故有是賜”

52) 『탐라지』 건치연혁조, “(충렬왕)二十六年庚子 設東西道縣<縣村 卽貴日高內涯月郭支歸德明月新村咸德金寧孤村洪爐猊來山房遮歸等地也 大村則設戶長三人城上一人 中村戶長三人 小村一人”

진영일에 따르면 당시 성주 왕자층은 읍성(邑城)에 거주하며 독자의 행정기구인 읍사(邑司)에서 호구 양전 조세 징수와 운송 등에 필요한 각종 공문서를 작성하는 주체였으며, 성주층은 육지의 상호장에 비견된다고 했다. 또한 대 중 소

있다. 원나라로부터 제주지역을 회복한 고려는 제주지역에 14개 현촌[속현]을 설치해 내륙과 같이 제주지역을 군현조직으로 재편하려 했다. 이로 인해 성주층의 지위와 위상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고려 전기 탐라국 성주층은 팔관회 참여, 고려 조정 조회와 토물(土物) 헌상(獻上) 등 고려의 번방(蕃邦)으로 제후국의 일원이었다. 고려정부는 이후 제주지역을 내륙과 같은 군현지배 조직으로 편제하는 과정에서 성주층은 내지의 호장(戶長)층과 같은 존재로 변모되기 시작했다. 그런 한편으로 원 간섭기 이후 원의 제주지배 방식을 원용해 성주층을 통한 자율적인 통치를 허용했다. 이로 인해 성주층은 내륙의 호장(戶長)층과 같은 존재로 변모되기 시작했지만, 내지의 호장층과 다르게 독자성과 자율성은 크게 약화되지 않았다.

성주층이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린 또 다른 원인은 고려와 원나라, 그리고 제주민에 대해 성주층이 구사한 고도의 정치력이다. 성주층은 전기에는 고려 조정에 조회하고 방물을 바치고, 무산계 등 관작(官爵)을 받은 위세로 제주지역에서 권위를 누릴 수 있었다. 몽골과의 강화(講和) 직후에는 몽골의 송나라 및 일본 정벌계획에 협조했다. 또한 삼별초 진압에 협조하는 등 원나라와 고려의 제주지역 통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로 인해 성주층은 원나라로부터 유총관·안무사·지휘사 등에 임명되어 그 지위를 유지했다. 성주 고석과 고신걸은 내지인 서해도 부천호(副千戶)에도 임명되었다. 또한 원나라로부터 제주지역을 고려에 귀속하는데도 협조했다. 원과 고려는 이같이 성주층에게 독자의 관청을 설치하고 관직에 임명해 이들을 통해 제주지역을 통치하려 했는데, 이로 인해 성주직을 세습할 수 있었다.

로 구분된 현촌 호장의 전체 숫자는 약 430명으로 추산했다(진영일, 앞의 책, 2008, 271-272쪽).

## VI. 맺음말

지배의 거점단위로 편제시키려는 고려 중앙정부의 노력과 그에 따른 제주 지방사회의 동향과 변화를 추적하는 연구가 그동안 연구의 주류적인 경향이였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주층은 고려 시기 내내 해체되지 않고 제주지역에서 지배세력의 지위를 유지해왔다. 내지 지방세력인 호장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성주층은 제주지역에서 독자성과 자율성을 누렸다. 고려 조정에 대한 조공(朝貢)과 사작(賜爵)을 통해 고려 중심의 천하질서에 안주했던 전기와 달리 고려 후기 성주층은 원나라와 고려 조정에 대해 타협적이거나 때로는 비타협적인 태도를 취하는 등 고도의 정치력을 구사하면서 지위를 유지했다. 제주지역 지배를 위해 성주층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원나라와 고려정부의 지배 의도와 방식을 꿰뚫고 성주층은 이해관계에 따라 고도의 정치력을 구사하면서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민과의 관계에서도 이해에 따라 성주층은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318년(충숙왕 5) 성주와 왕자가 제주민 사용(使用)과 김성(金成)의 반란으로 축출되는 모습<sup>53)</sup>은 성주층이 제주민에 대한 수탈자의 모습으로 비춰진다. 1362년(공민왕 11) 5월 성주 고복수는 목호 세력 고독불화 석질리필사와 결탁해 고려정부에 반란을 일으킨 사실<sup>54)</sup>은 성주의 지위를 위협받을 경우 직접 반란에 가담하기도 했다. 1375년(우왕 1) 제주민 차현유 등이 명나라에 바칠 마필(馬匹)을 점검하던 목사·안무사 등을 살해하는 반란을 일으켰을 때, 성주 고실개는 제주민의 반란을 진압해 고려 조정을 안정시킨 역할도 했다.<sup>55)</sup> 성주층은 고려정부에 충성을 하기도

53) 『고려사』 권34 충숙왕 5년 2월, “濟州民使用金成 嘯聚兇徒以叛 逐星主王子 星主王子奔告”

54) 『고려사』 권40 공민왕 11년 8월, “耽羅牧胡古禿不花石迭里必思等 以星主高福壽叛”

55) 『고려사』 권133 우왕 1년 11월, “濟州人車玄有等焚官廨 殺安撫使林完 牧使朴允清 馬畜使金桂生等以叛 州人文臣輔 星主高實開 鎮撫林彥 千戶高德羽等 起兵 盡誅 禍遣使如京師 奏之”

하지만 지위를 위협받을 경우 반란을 일으키기도 하는 존재(乍順乍逆)라는 지적<sup>56)</sup>은 성주층의 다양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서술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는데 그쳤지만 앞으로 성주층과 제주민의 관계는 좀 더 본격적으로 천착할 필요가 있다.

원나라와 고려 조정에 대해 이같이 타협과 비타협의 모순된 처신을 서슴없이 구사한 성주층의 존재야 말로 역설적으로 고려시기 제주지역에 강인하게 그들의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앞으로 고려시기 제주지역의 특성을 새롭게 이해하는 돌파구의 하나는 고려 당대는 물론 족보민담과 전설 구술 및 구전 자료 등 후대의 가용한 자료를 폭넓게 활용하여 역사적 존재로서의 성주층을 객관적인 시각에서 새롭게 이해하고 재평가하는 일이다. 고려시기 제주지역 지방사회와 지방세력 및 제주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이해하는 연구소재로서 성주층의 존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6) 『탐라지』 건치연혁조, “星主王子之號 自新羅始封 世世襲爵 至高麗時 沿革相乃 亂亡相繼 人心乖隔 乍順乍逆”

참고문헌

1. 자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성주고씨가전(星州高氏家傳)」, 『동문선(東文選)』

이원진(李元鎭), 『탐라지(耽羅志)』(1653년)

2. 논저

고창석, 「탐라의 군현 설치에 대한 고찰」, 『제주대논문집』 14, 1982

\_\_\_\_\_, 「려·원과 탐라와의 관계」, 『제주대논문집』 17, 1984

\_\_\_\_\_, 「원명 교체기의 제주도」, 『탐라문화』 4, 1985

김보광, 「고려 전기 탐라에 대한 지배방식과 인식의 변화」, 『변경과 경계의 동아시아사』, 혜안, 2018

김일우, 『고려시대 탐라사 연구』, 신서원, 2000

김창현, 「고려의 탐라에 대한 정책과 탐라의 동향」, 『한국사학보』 5, 1998

노명호, 「10~12세기 탐라와 고려국가」, 『제주도연구』 28, 2005

이강한, 「13~14세기 고려와 원제국의 탐라(제주) 정책」, 『한국학논총』 48, 국민대, 2017

진영일, 「고려전기 탐라국 연구」, 『탐라문화』 16, 1996

\_\_\_\_\_, 『고대 중세 제주역사 탐색』, 보고서, 2008,

박종기,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2002

\_\_\_\_\_, 「왕조의 장기지속성과 고려의 지방사회」, 『한국사에 있어서 지방과 중앙』, 서강대 출판부, 2003

\_\_\_\_\_, 「고려 전기 주민구성과 국가체제-來投 문제를 중심으로」, 『동북아 역사논총』 23, 2009

추명엽, 「고려 전기 ‘반’ 인식과 ‘동·서반’의 형성」, 『역사와 현실』 43, 2002

旗田巍, 「高麗의 武散階」, 『朝鮮學報』 21·22, 1961(『조선중세사회의 연구』, 법정대학출판국, 1972, 재수록)



## ABSTRACT

A New Comprehension on Jeju area  
in Goryeo dynasty

Park, Jong-ki\*

The main tendency of comprehension on Jeju area in Goryeo dynasty(918-1392) was to investigate the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Jeju society through reforming the Jeju's local administration system by the central government. Jeju area(island) was the ceter of Tamna Kingdom from ancient time to the early Goryeo dynasty. The Seongju(星主) and Wangja(王子) were the ruler of the Kingdom. As the central government governed the Kingdom directly from the twelveth century, they became the local elites of Jeju area. Seongju(星主) and Wangja(王子) as the local elites maintained their status to the end of the Goryeo dynasty. The Yuan and Goryeo permitted Seongju(星主) and Wangja(王子) to get the autonomy to rule Jeju area effectively. It's very different from the inland's local elites who were changed greatly through the rebellion and war from the period of Military Regime and Yuan Intervention in the late Goryeo dynasty. Seongju(星主) and Wangja(王子) had very flexible thinking and strategic attitude to the policy of controlling Jeju area by Yuan and Goryeo. They acted antagonistic attitude or friendly attitude to Yuan and Goryeo according to their interests. These attitudes could maintain their status as local elite to the end of Goryeo dynasty. It's desirable to focus

---

\* Emeritic professor of Korean History, Kookmin University

on the Seongju(星主) and Wangja(王子) in order to comprehend the Jeju area in Goryeo dynasty.

Key-words: Jeju area(island), Seongju(星主), Wangja(王子), Goryeo dynasty, Tamna Kingdom

논문투고일 2022. 09. 21.

심사완료일 2022. 11. 09.

게재확정일 2022. 11. 15.